

세계유산 화성행궁 '태평성대' 밤 밝힌다

수원방문의 해 맞아 야간 특화 '수원화성 태평성대' 만끽 내달 8일 첫 회 시작으로 5~6월, 9~10월 금·토요일 운영

경기도 수원특례시의 화성행궁 대표 야간 특화프로그램인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통해 5월 화성행궁의 아름다운 밤을 만끽한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20일 예약을 시작한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첫선을 보였다.

시는 '수원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올해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을 화성행궁 야간개장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행궁동 주민들로 구성된 '행궁마을협동조합'이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세계유산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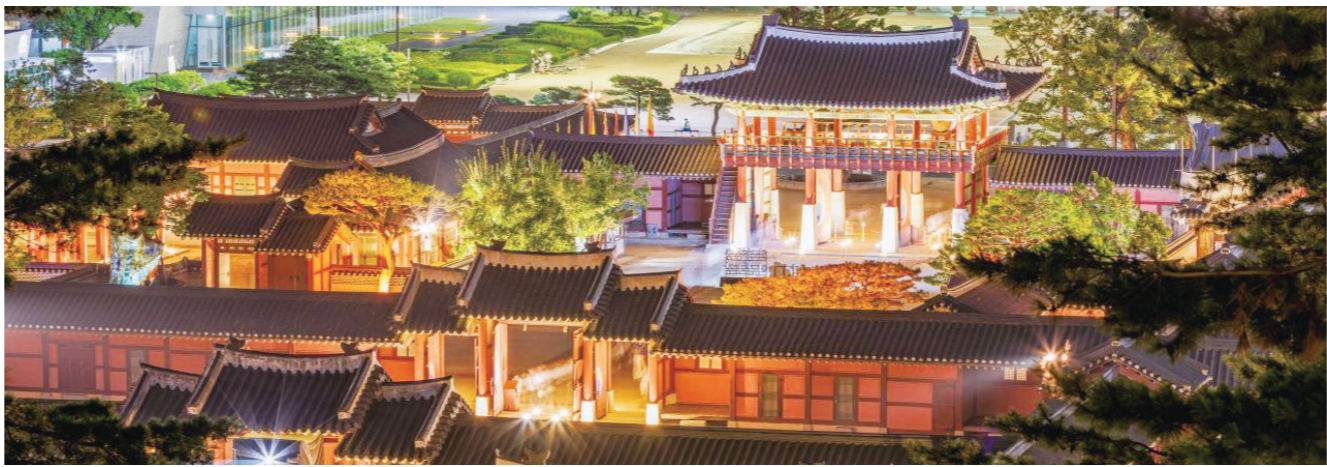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화성행궁 별주에

서 진행되는 '해경궁 궁중다과 체험'과 화성행궁 일원을 탐방하는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으로 구성된다.

'다과체험'은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잔치상이 수록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재현한 1인 궁중다과상을 전통음악과 함께 별주에서 즐기는 미식 프로그램이다.

'고궁산책'은 이야기꾼의 안내와 행궁동 주민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가 어우러지는 체험형 야간 투어로 조선 최대 규모의 국왕 행차가 있었던 화성행궁의 밤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다과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더 풍성해졌다. 스가족 방문객을 위한 3인석 신설 △재방문자를 위한 상하반기



화성행궁의 아름다운 밤을 만끽 할수있는 야간 특화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내달 펼쳐진다.

한국관광공사

계절 메뉴 제공 △한복 착용자를 위한 전통 장신구 체험 및 즉석 사진 촬영(1인 1장) 이벤트 등 다채로운 혜택이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다과체험 무료)과 네이버 예약(고궁산책 무료)에서 할 수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내달 8일 첫 회를 시

작으로 상반기(5~6월)와 하반기(9~10월) 매주 금·토요일 저녁에 운영된다.

인근 대규모 행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운영 일자가 변경될 수 있어 예약 전에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유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활용의 가치를 입증받은 만큼 올해는 한층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화성을 찾는 관람객이 화성행궁만의 특별한 야간 콘텐츠를 체험하며 태평성대의 밤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수원특례시가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 베스트 축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선은임(오른쪽)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대상을 받고 있다. 수원특례시

수원, 대한민국 축제 어워드 대상 마케팅·콘텐츠 등 전분야 최고점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 베스트 축제 어워드'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21일 밝혔다.

수원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하며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와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방문객들에게 홍보했다.

베스트 축제 어워드 수상 지자체는 홍보 부스 운영계획, 프로그램 참여도, 현장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수원시는 마케팅, 콘텐츠, 부스 운영, 대중 선호도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점을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선은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에서 수원의 축제 역량을 인정받고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차별화된 콘텐츠로 글로벌 축제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는 전국의 대표 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축제 전문 박람회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화성특례시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가동

수원지구원에농협과 농번기 일손 가뭄 해소 인건비 부담 줄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기대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수원지구원에농협과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증개센터(공공형)'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21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도입된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19명은 17일 입국했으며 이달말 1명

이 추가로 입국해 총 20명이 영농철 농가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농가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던 방식과 달리 운영 주체인 수원지구원에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형 모델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신청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라오스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수원지구원에농협과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지 채용까지 완료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17일 입국한 근로자들은 20일 수원지구원에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환영식과 국

내 적응 교육을 마쳤다.

21일 농가에 배치돼 일일 인력증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조항 농정해양국장은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을 통해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와 과수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 인력 공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국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농촌형 인력증개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가 맞춤형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화성-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인천광역시 24일부터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2차에서 강남역까지 과영급행버스를 2대 증차해 출퇴근 시간에 배차 간격을 단축한다. 인천광역시

인천시, 송도~강남 광역 급행 M6464번 증차 운행

인천광역시가 24일부터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를 기점으로 서울 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M6464번 노선의 차량을 2대 증차해 배차 간격을 단축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구가 증가한 송도 6공구와 일부 3공구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28일 운행을 시작한 노선으로 환승 없이 강남까지 이동할 수 있다.

당초 운행 개시 당시에는 차량 확보와 운수종사자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일정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시는 송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고 우선 3대(전세버스 1대 포함)를 투입해 운행을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증차에 따라 M6464번은 평일 기준 기존 3대에서 2대가 추가된 총 5대(전세버스 1대 포함)로 운행되어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인천문화예술회관, 1000원에 연극·오케스트라 공연 즐겨

1인 최대 4매까지 구매 가능 누리집 통해 단독 예매 진행

인천광역시 시민이 단돈 1000원으로 연극과 해외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천원 문화티켓' 사업과 연계한 문화공연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천원 문화티켓'은 지난해 10월 첫 시행 이후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운영되는 사업으로 공연 관람 비용 부담을 낮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1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 시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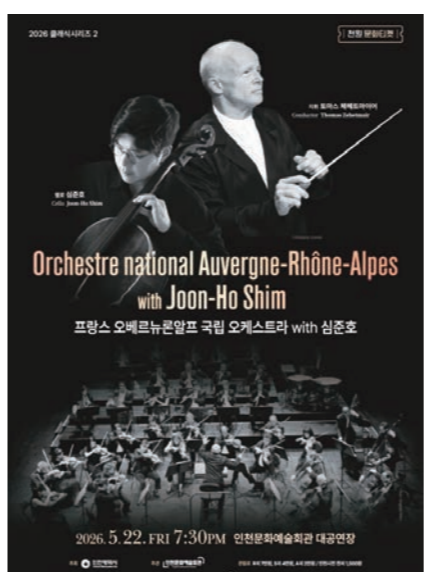
회관이 이번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작

품은 대학로 최고의 화제작 연극 '쉬어메드니스'와 세계적 수준의 연주를 만날 수 있는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 국립오케스트라 with 심준호'이다.

먼저 내달 15, 16일 소공연장 무대에 오르는 연극 '쉬어메드니스'는 1980년 미국 초연 이후 세계 36개국에서 사랑받은 인기 작품이다. 관객이 직접 살인사건의 범인을 지목하는 참여형 구조로 매회 결말이 달라지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어 22일 대공연장에서는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 국립오케스트라 with 심준호'가 열려 현악 앙상블의 진면목을 선보인다. 가장 토마스 체헤트마이어의 지휘 아래 차이콥스키, 브리튼 등 고전부터 동시대 음악까지 아우르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무대는 대중적인 장르와 정통 클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 국립 오케스트라 with 심준호 포스터. 인천시청

래식을 넘나드는 폭넓은 구성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티켓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단독으로 예매할 수 있다. 연극 '쉬어메드니스'는 21일,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 국립오케스트라 with 심준호' 공연은 23일에 각각 예매를 시작한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1000원으로 예매가 가능하며 1인당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연 당일에는 관람객 전원의 인천시민 여부를 확인한다. 티켓 수령 시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안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민 대상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차액을 지불하거나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인천-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바가지 막는 '설계도서' 무상 지원

경기도가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공사 시 전문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낭비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오산시 열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수리나 외벽 도장 등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도민들은 복잡한 공사내역서나 시방서를 직접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경기도는 이러한 도민의 불편함과 금전적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가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해 주는 무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공사에 필요한 내역서와 시방서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방식이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미 341개 단지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비 누수를 막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혜택을 누렸으며, 올해도 30개 단지에 전문적인 설계도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수공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플러스' 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경기도는 설계도서 지원 신청이 있을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신청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로 설계도서 준비기간을 최소화해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일을 막고, 도민들이 제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계도서 지원은 경기도가 아파트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의 하나다.

공사계획 단계에서 1단계 기술자문을 먼저 받은 단지라면 누구나 이 2단계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3단계인 공사 품질 확보 자문까지 하나로



경기도가 2026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이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먼저 받은 단지라면 누구나 이 2단계 설계도서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용인, 아동의 안전과 범죄 예방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 추진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정 대상 지역은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초·중등학교 △도·시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등이다.

시는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시는 이달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사업을 진행하며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아동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안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한다.

시는 7월까지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안내하고 접수를 진행하고 유관기관간 담합과 현직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경찰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설부지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지정된다.

이 구역에는 시가 기준에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연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용인-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